

인터뷰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11일 “민선 5기 때부터 구청장으로서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계양구에 교육·문화·경제 시설을 조성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족도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계양구는 사람중심, 지역중심, 산업중심 일자리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제공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양의 신성장 동력인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지난해 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족도시’ 계양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운산단’ 고용 1만명, 1.1조 생산유발 효과 직주근접 자족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자 1년여가 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인천시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은 8년간의 구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도시환경, 역사·문화·교육, 재난안전, 보건복지, 소통참여 등 6개 분야 55개 사업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서운일반산업단지의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1만여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1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서운산단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현재 분양된 업체는 72개다. 이중 40여개 업체가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에 위협이 되는 업체를 전면 배제하고 기계, 전기, 전자 등의 제조업체 등에 대해 중점 분양했다. 앞으로 3년 후엔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한 점검 중에 있다.”

“서운산단 특성에 맞춘 고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운

산단 입주기업 현황 및 입주계획, 인력 총원계획, 인적자원개발 현황, 산업별 지원제도 및 희망 사업요구 사항 등을 조사·분석해 서운산단 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비전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교차로 정지 안하는 S-BRT 신설

산업관련 기업, 유망 벤처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유치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계양테크노밸리는 남양주, 용인, 과천 등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아파트보다 산업단지를 먼저 지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계양구 굴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에 세워진

다. 오는 2026년까지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신 경인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으로 전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충분한 문화·여가 공간과 교육·BR·공공서비스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추진될 예정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타 신도시와는 달리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의 산업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는 1만 7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일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직주근접형의 자족도시 조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진행상황과 교통대책은 어떠한지.

“3기 신도시의 성공과 관련해 무엇보다 교통 대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먼저 인천 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8km 구간에는 교차

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S-BRT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도 39호선 인별말로(9km)가 올림픽대로까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IC신설,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 청라~가양간 BRT가 사업지와 연결될 계획이다.”

-신도시에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서는 산업단지는 어떻게 조성되나.

직접 일자리사업 50개 넘어
취약계층 4000명에 일자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가 주목 받는 이유는 가용용지의 절반에 이르는 약 90만㎡의 자족시설 면적과 비울뿐 아니라 더드림(The Dream)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기업 및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자족성 확보 전략 때문이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중 자족용지 비율이 27%로 제일 높으며, 2기 신도시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더드림(The Dream)존에는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성장센터,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도의 창업·기업지원 공간뿐 아니라 벤처타운, 혁신타운, 사이언스빌리지 등 민간주도의 혁신공간도 마련된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 산업단지 조성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진행사항에 대해

“현재 계양구는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0개가 넘는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4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확대·추진해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신중년을 위한 해외여행객 여행가방 당일 배송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철·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경관숲 조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과 주요 관문에 경관숲이 조성됐다.

광주광역시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 진입로와 문흥IC 진출입로 등에 경관숲 8곳을 조

성하고 금화로, 사암로 등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녹화지 12곳을 조성했다.

이번 녹화사업으로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푸른 도시 광주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면서 광주의 상징성을 담은 이미지 숲을 조성하는 등 주요 관문 진입로와 나들목(IC) 등에 총 66억원을 투입해 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광주=봉재영 기자 boy2020@

담양군-광주관광協, 지역 관광발전 맞손

공동마케팅·상품개발·홍보 등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상호협력

담양군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관광협회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담양군과 광주광역시관광협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개최하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이후 상호간의 관광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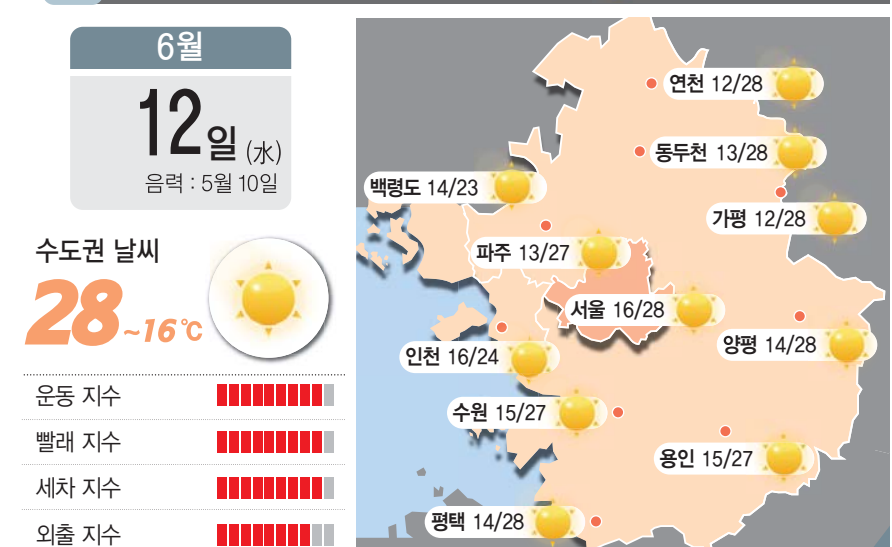
/담양 군청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담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정보제공

▲팸투어, 세일즈콜, 기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오늘의 날씨



김영록 전남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사진)가 민선7기 17명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2개월만에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섰다. 전라남도는 또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역시 2개월만에 1위 자리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5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는 63.4%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 60.8%, 이철우 경북지사 56.8% 순이었다. 17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8.6%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라남도가 62.9%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광주시 61.2%, 제주특별자치도 59.2% 순이었다. 전국 광역시·도의 주민생활 만족도 평균은



53.5%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8.1%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만에 1위로 올라섰다.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 53.9%, 이석문 제주교육감 46.5% 순이었다. 전국 광역시도교육감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3.6%다.

/전남=봉재영 기자